

200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언어 영역

정답

1	④	2	③	3	①	4	③	5	④
6	④	7	⑤	8	③	9	④	10	①
11	⑤	12	④	13	②	14	③	15	③
16	①	17	③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③	23	⑤	24	①	25	④
26	⑤	27	②	28	③	29	②	30	⑤
31	②	32	④	33	④	34	②	35	③
36	⑤	37	①	38	⑤	39	②	40	②
41	①	42	①	43	①	44	⑤	45	③
46	①	47	①	48	②	49	④	50	②

해설

<1> 이제 여러분에게 세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정(여) : 너희 간판 조사해 왔니? 수행평가 자료 말이야.
 성환(남1) : 난 못했는데. 다른 일 하느라고 PC방 갔다가 깜빡했어. 어떻게 하지?
 다정 : 현호 너는?
 현호(남2) : 동아리 활동하다가 밤 10시가 넘었거든. 너무 피곤해서...
 다정 : 결국, 뭐야. 너희 간판 조사하기로 한 것 하나도 안 했잖아.
 성환 : 난 했지?
 다정 : 나야 했지. 우리 집 가는 길에 간판 16개를 조사했어. 하지만, 이 정도로는 자료가 부족한데.
 현호 : 이제 어떻게 하니? 성환이가 어제 큰소리치기에 그 말 믿고 그냥 집에 갔는데.
 성환 : 왜 날 끌고 들어가니? 너도 안 한 것은 마찬가지면서.
 현호 : 그래도 나는 논 것은 아니다.
 성환 : 나도 그래.
 현호 : 너 보나 마나 PC방 가서 그놈의 게임하느라 까먹은 것이잖아.
 성환 : 너 봤나? 그리고 너도 동아리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랬는지 누가 알아?
 현호 : 이번에 수행 평가 점수 나쁘면 너 책임져.
 성환 : 왜 내가 책임 지냐? 네가 책임져야지.
 다정 : 야! 그만 해라 그만 해. 뭘 잘했다고 그래, 둘 다.

1. [출제의도]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발화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두 남학생이 수행평가를 위해 맡은 자료 조사를 하지 않고 서로 잘못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여학생이 두 남학생이 모두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비판하는 말로 적당한 속담은 '숫이 검정을 나무란다.'이다. 이 속담은 숫이 검은 것을 나무란다는 뜻으로, 제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다. ② 눈앞에 급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하

는 임시변통이 결과적으로 더 나쁘게 되었을 때 하는 말이다. ③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이다. 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럿이 하면 더 쉽다는 말이다.

<2> 이번에는 수학 수업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그림을 보면서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한붓그리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붓그리기라는 것은 주어진 도형을 그릴 때, 붓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같은 선 위를 두 번 반복해서 지나지 않도록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위의 그림은 '코니히스베르크의 다리' 이야기에 나오는 그림을 간략하게 그린 것이고, 아래 그림 다섯 개는 설명을 한 후에 질문을 할 것인데, 그때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미리 그린 것입니다.

<그림 1>을 보세요. 과거 독일의 도시였던 코니히스베르크에는 시가지 한복판으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에는 두 개의 섬이 있고, 7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시민이 "한 다리를 단 한 번씩 건너면서 7개의 다리를 모두 건널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내었고, 많은 시민이 앞 다퉈서 문제풀이에 도전하였으나, 풀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 유명했던 수학자 오일러가 코니히스베르크를 방문했기에 시민들은 오일러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오일러는 이 문제를 <그림 2>처럼 한붓그리기 문제로 바꿔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도형에서 선의 끝이나 선들이 만나는 점을 '꼭짓점'이라고 하고, 홀수 개의 선이 모이는 점을 '홀수꼭짓점', 짝수 개의 선이 모이는 점을 '짝수꼭짓점'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 홀수꼭짓점이 아예 없거나 두 개인 도형만 한붓그리기가 가능하고, 홀수꼭짓점이 두 개보다 많으면 한붓그리기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한붓그리기가 가능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짓점에 모이는 선의 수를 세고 그중에서 홀수 개의 선이 모이는 꼭짓점의 개수를 세어 보면 됩니다. 코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는 왼쪽의 점 C에 5개의 선이 모이고 나머지 N, E, S에는 각각 3개의 선이 모이므로 홀수 꼭짓점만 4개인데, 오일러는 홀수꼭짓점이 없거나 2개인 경우에만 한붓그리기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한붓그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한붓그리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2. [출제의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선생님의 설명 마지막에 한붓그리기가 가능하려면 홀수꼭짓점이 없거나 2개이어야 한다고 했다. 각각의 홀수꼭짓점 수는 ①과 ②는 2개, ③은 4개, ④와 ⑤는 없으므로 답은 ③이다.

<3> 이번에는 우리나라 풍습에 대한 교양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던 풍습 중에서 오른쪽을 귀하게 여기고 왼쪽을 천하게 여기는 존우비좌의 풍습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망명 정부 시절 단체 신채호 선생은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오른손 한 손만으로 물을 길어 얼굴을 씻었습

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아이들처럼 옷소매와 저고리 앞자락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옷도 단벌밖에 없어 외출하려면 아랫사람이 부엌에 들고 가서 말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옷 말리기에 짜증이 난 아랫사람이 "왼손도 함께 쓰면 조금은 덜 젖을 게 아닙니까?"라고 묻자, "천한 그 왼손을 존귀한 얼굴에 대다니 그런 불손한..."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일화에서처럼 옛 우리 선비들은 오른손을 존중하여 갓을 쓰고 수업을 쓰다듬고 밥을 먹고 하는 머리 위의 일에만 오른손을 썼습니다. 오른쪽에 귀하고 바르고 또 현명하며 소중하다는 뜻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문 집안을 '우성'이라 하고 학문을 숭상한다는 말을 '우문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왼쪽은 멀리하고, 불편하고, 천하다는 뜻을 부여하여, 잘못된 도리를 '좌도'라고 하였고, 왼손도 천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3. [출제의도]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예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의 주제는 존우비좌 사상으로서 오른쪽을 존귀하게 여기고 왼쪽을 비천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풍습이다. 그런데 ①은 왼쪽인 좌의정이 오른쪽인 우의정보다 높은 관직이므로 강연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는 오른쪽과 좋은 일을 연결시킨 것이고, ③, ④, ⑤는 모두 왼쪽을 좋지 않은 의미나 일에 연결시킨 것이다.

<4-5> 이번에는 학교 방송 프로그램 중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자 :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전교생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보건 선생님을 모시고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사 : 안녕하세요?

기자 : 왜 아침밥을 먹어야 하죠?

교사 : 이 기자 반에는 혹시 1교시부터 조는 학생들 없나요?

기자 : 당연히 있죠.

교사 : 아침부터 조는 것도 아침밥을 거르기 때문이겠죠.

기자 : 어째서 그런가요?

교사 : 우리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혈액이 간, 근육에 저장돼 있는 '포도당'을 소비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의 절반 이상을 소모합니다. 이때쯤 해서 영양분을 새로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몸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해서 얻으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젖산을 비롯한 피로 물질이 체내에 쌓입니다. 결국, 아침밥을 건너뛰면 그만큼 피로가 커지고 신체의 활력이 떨어져 1교시부터 졸게 되고, 졸음을 억지로 참더라도 두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학습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자 : 아침 시간에 졸거나 멍하게 있는 것이 아침밥 때문이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교사 : 그리고 식사를 거르거나 해서 위장이 비워진

체로 있으면, 위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아침을 거른 후에 점심이나 저녁을 먹게 되면 과식하게 마련이고, 그 결과 소화 기능 장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기자 :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침밥을 걸렀기 때문이군요.

교사 : 그뿐만이 아닙니다. 빈혈이나 비만, 변비 등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을 건너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심때 먹는 양이 많아지고, 의식적으로 적게 먹더라도 우리 몸은 다음날 아침의 배고픈 상태에 대비해서 피하지방 형태로 영양분을 미리 저장해 두게 됩니다.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이 있다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아침을 거르고 간식을 먹게 되면 빈혈에 걸릴 가능성까지 커집니다. 간식으로 먹는 음식들은 주로 인스턴트식품인데, 이런 음식들은 열량만 높지 비타민이나 무기질, 섬유소 등이 적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음식들은 장의 운동을 둔화시켜서 늘 아랫도리가 묵직한 변비 상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기자 : 비만에 변비까지... 수험생이 아침밥을 거르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학우 여러분, “아침밥을 먹자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정원이었습니다.

4. [출제의도] 대담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건 선생님은 아침밥을 거르면 첫째, 오전 시간대에 졸음이 오고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고, 둘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발병하거나 소화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했으며, 셋째, 빈혈이나 비만, 변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5. [출제의도] 대담자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기자는 보건 선생님이 한 가지 화제에 대해 설명을 마칠 때마다 설명 내용을 요약하여 말함으로써 청취자들이 중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자료를 해석한 후 그 내용을 통해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철새들이 달을 배경으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그림이다. 먼저 이 자료를 해석하여 적절한 상황을 추리해야 한다. 이어서 이렇게 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삶과 연관된 내용을 연상해야 하는데, ‘높이 날아감’이라고 해석한 자료를 통해서 ‘여유를 추구하는 삶’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상을 추구하는 삶’ 정도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때가 돼서 움직이는 것’은 세상(자연)이 정해 놓은 적절한 시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이치, 즉 순리(順理)를 따르는 삶으로 볼 수 있다. ⑤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행동’에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연상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춰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은 [장면 1]에서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고, [장면 2]에서 ‘시청자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⑤는 [가]에서 ‘당신은 맥주 한 캔으로 ~고철이 생기는지 아십니까?’라고 하여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고, [나]에서 음주 운전을 하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여, 시청자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오답풀이] ① 조건의 [장면 2]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② 조건의 [장면 1]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③ 조건의 [장면 2]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윤리의식을 취하게 하는 것’은 계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경각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조건 1], [조건 2]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8. [출제의도] 내용 흐름에 맞게 글을 바르게 고쳤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은 내용상 역접관계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은 ‘그러나’로 수정해야 자연스럽다. ‘그리고’나 ‘그러므로’는 모두 어색한 연결이 된다.

[오답풀이] ① 글 전체의 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허와 실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제시한 후 사회의 시각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한 글이기 때문이다. ② ㉠에서 ‘청소년은 ~과도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해졌다. 따라서 주어를 ‘청소년기는’으로 수정하면 분명해진다. ④는 앞에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청소년들이 대중가요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득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어 타당한 논거의 보완이 필요하다. ⑤ 오용은 ‘잘못 사용함.’의 뜻인데 문맥적으로 볼 때, 어색하다.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쓰다.’라는 의미의 악용이 적절한 어휘의 선택이다.

9. [출제의도] 글의 개요를 이해하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청년층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의 자기 계발 의지를 함양하는 정책이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10.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한 논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자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①은 (나)의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11. [출제의도] 도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용례를 떠올리며 탐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선생님의 말대로 ‘있다’, ‘없다’는 동사와 형용사, 두 품사의 활용 방식을 보이는 단어이다. 이를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있다’, ‘없다’를 <보기>에 제시한 어미와 결합시켜 확인하면서 용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해결할 수 있다. ⑤ ‘없다’는 ‘있다’와 청유형을 취할 수 있으나에서는 차이가 난다. 예컨대 “우리 여기에 있자.”라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없자.”라는 말은 어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없다’라는 말은 청유형에 있어서 형용사의 성격을 가진 단어이다.

[오답풀이] ① ‘있는 사람’, ‘있는 집안’ 등에서 보듯이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없는 사람’, ‘없는 집안’ 등에서 보듯이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③ ‘사람이 없구나’와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감탄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④ ‘여기에 있자.’와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청유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문장에 쓰인 다의어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 2>의 문장에 쓰인 ‘들다’는 세 가지의 의미로 구별할 수 있다. ㄱ과 ㄴ은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로 함께 묶을 수 있고, ㄴ과 ㄷ은 ‘위로 올린다.’는 의미로 함께 묶을 수 있다. 그리고 ㄹ은 ‘날이 날카로워 물결이 잘 베어지다.’라는 의미로 네 문장에 쓰인 ‘들다’와 의미가 구별된다.

[13 - 16] (가) 한용운, ‘님의 침묵’

(나) 김기림, ‘길’

(다) 김수영, ‘파발가에서’

(가)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깨달음을 통해 이별을 ‘임이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작품의 주제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나) 이 시는 화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길’에 얽힌 추억을 표현하고 있다. ‘길’로 화자의 어머니의 상여가 가고 첫사랑이 갔기 때문에, ‘길’은 화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곳이다. (다) 이 작품은 ‘새로운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곧 목은 사랑을 잃는 것이다.’를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목은 사랑이 / ~ /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를 연마다 동일하게 구성함으로써 주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작품들 간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의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진술이다. 하지만, 이렇게 모순 어법을 쓴 이유는 화자 자신은 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다)도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는 모순 어법으로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4. [출제의도] 시의 정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에는 화자의 외로움이 표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③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에 혼자 남아 있는 화자의 외로움이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③이 ①과 그 정조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풀이] ① 화자 자신을 찾아준 것에 대한 반가움. ② 부정한 것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 ④ 농사에서 느끼는 기쁨. ⑤ 전쟁의 비극성.

15. [출제의도] 작품의 감상을 묻는 문제이다.

붉은 파발에서 푸른 새싹은 돋아나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그러나 푸른 새싹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파가 소멸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붉은 파발에서 묵은 것과 새싹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

1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㉔는 님이 떠나간 길이다. 마찬가지로 ㉕도 화자가 소년이었을 때 죽은 어머니를 보낸 길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첫사랑을 잃은 길이다. 따라서 ㉔와 ㉕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17 - 20] 인문, '역사에 대하여'

1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2문단과 5문단의 내용을 보면 역사는 언제나 새롭게 기록될 수 있고, 그 기록에 따라 역사적 의미 또한 바뀔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번 기록된 역사의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과 5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진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㉑은 기존의 역사적 서술이 새로운 관점에서 서술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이다. ㉒의 거북선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관옥선을 개량'했다는 것은 거북선의 제작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돌격선 역할'을 했다는 것은 거북선의 제작 원리를 새로운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거북선에 대한 내용 중, 거북선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19. [출제의도] 글의 흐름에 맞게 다른 어휘로 바꿔 쓰는 문제이다.

㉔의 '틀'은 '구조'로 바꿔 쓸 수 있다. 문맥상 ㉔는 '(부분이나 요소가) 전체를 이루는 것.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일개'를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의미인 '구조'가 적절하다. 그리고 ㉕는 문맥으로 보아 '관점'이 적절하다. '(역사적 사실이나 사물, 현상 등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미하므로 '관점'이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이 적절한지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역사의 기록 과정과 역사와 역사소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역사의 창조성과 가변성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㉒의 반응은 유물이나 유적의 발굴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글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21 - 24] <과학> 유전자와 인간

21.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에 의하면, 현재의 유전자 연구 수준은 유전자의 위치나 염기서열을 밝힌 것이 일부 있을 뿐이며, 3000여 종류의 유전병 중에서 일부만의 원인 유전자를 찾는 정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유전자 연구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㉔이다.

22. [출제의도] 논지에 부합하는가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나)글을 보면, 쌍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는 심증을 굳히게 하였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 논지를 뒷받침하려면, 유전자가 동일한 경우 환경이 달라도 성격이 흡사해야 할 것이며, 유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환경이 동일해도 성격은 달라야 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23. [출제의도] 자료 활용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과학적 신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내용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가)~(마)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겠지만, 글의 흐름을 고려해 보면 '그 실험 결과들은 분명한 사실로 입증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유전자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마)글과 입장이 가장 유사하다.

24. [출제의도] 새로운 내용에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상황은, 나치 정권이 '유전자와 유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생학'의 이론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사용하여 대대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권이 종식된 후에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우생학 연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생학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말하는 ㉑번은 잘못된 진술이다.

[25 - 29] (가) 박지원, '한바탕 울 만한 자리'

(나) 김인겸, '일동장유가'

(다) 이태극, '서해상의 낙조'

(가) '열하일기' 중 '도강록' 7월8일의 내용으로, 드넓은 요동 벌판을 보며 느끼는 감격과 기쁨을 울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역설적인 발상으로 드러낸 글이다. 새로운 문물을 견문한 자신의 여행 체험을 갖난아기의 출생에 비유하여 인식하는 독창적인 사고가 돋보이는 글이다.

(나) 이 작품은 조선 영조 때의 문인이었던 작가가 조엄이 통신사로 일본에 갈 때 서기로 발탁되어 수행하면서 견문한 바를 기록한 장편 기행가사이다. 지문의 내용은 대마도에 당도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대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

(다) 작가가 1957년 해군 함정을 타고 항해하던 중 서해상에서 쓴 작품으로, 서해의 장엄한 일몰 광경을 시간의 진행에 따라 사실적으로 묘사한 현대시조이다.

25. [출제 의도] 화자의 태도를 파악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시적 화자는 대마도에 당도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놈'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㉒(가)에서는 '삼류하', '냉정', (나)에서는 '대마도가 가까운 해상', '좌수포' 등 화자가 이동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㉓(가)의 화자는 '정진사'와 대화하면서 그를 깨우쳐 주고 있다. ㉕(다)의 화자는 '일몰 직전, 일몰 순간, 일몰 직후'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낙조의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화자의 체험과 인식 과정을 내용을 토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청나라 기행 중 드넓은 벌판을 보면서 울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넓은 세상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인데, 그 이유를 지극한 감정은 하나로 통한다는 전제와 갖난아기의 비유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나'의 인식 과정 3단계의 울음은 심리적 갈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갑갑한 조선을 벗어나 청나라와 그 선진 문화를 새롭게 접하게 된 기쁨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풀이] ㉑ 체험 과정의 2단계는 '나'가 드넓은 벌판을 보는 것인데, 이 드넓은 벌판 중에는 백담의 모습이 포함된다. ㉒ 화자는 넓은 세상을 보며 감격하고 기뻐하는 상황에서 울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슬플 때 울음을 보인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뒤엎는 반응이다.

27. [출제의도] 문맥적 흐름에 맞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㉑은 오랜 여행에서 오는 객수(客愁)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드넓은 벌판을 보는 화자의 감격과 기쁨 및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㉓ 화자는 기쁨이나 슬픔, 노여움 등의 칠정(七情)이 지극해질 때 울음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울음이 기쁨과 상반되어 슬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칠정 모두에 통한다는 깨달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전제로 해서 화자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순간에 '한바탕 울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다.

28.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정서와 유사한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㉒는 화자가 포구 주변의 봉만(뽕죽한 산봉우리)의 경치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 것이다. 두류산(지리산) 양단수의 절경에 감탄하고 있는 ㉓에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㉑ 농사일에서의 근면과 상부상조를 권장하고 있다. ㉒ 괴로운 현실에서 시름을 느끼고 있다. ㉔ 고국을 떠나는 안타까움이 제시되어 있다. ㉕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29. [출제의도] 표현 방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㉑ 3연의 초장에 나오는 '그림진다'가 해당된다. ㉒ 3연의 종장을 보면 달을 의인화 하면서 시적 화자의 감정을 투영해 달맞이의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㉕ '어허, 아차차' 등의 감탄사를 사용해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30 - 33] 작자 미상, '홍부전'(경판 25장본)

홍부전(홍부傳)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로 집단성과 적층성을 뚜렷이 지닌 작품으로 '방이 설화', '박 타는 처녀 설화' 등 여러 전래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홍부와 놀부는 조선 후기 사회 변화 속에서 탄생한 전형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놀부는 광범위하게 재산을 확보한 부농의 모습을, 홍부는 가난에 찌든 빈농의 모습을 대변한다. 최근 들어 홍부전을 '홍부의 선행과 놀부의 악행', '형제간의 우애'라는 고정화된 보편적 주제 의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관점을 비롯한 새로운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본은 37종이나 된다. 필사본 11종, 판본 3종, 구활자본 7종, 판소리 창본 15종, 일역본 1종이 있다.

30. [출제 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위 글은 주로 장면(상황)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의미를 확장하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흥부가 놀부를 찾아가는 장면에서 흥부의 복색을 묘사하는 부분, 놀부가 역시 이유를 들어가며 흥부의 엄치없음을 탓하는 부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진술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흥부의 성격을 평가하거나 놀부의 행위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다. ② 운율감이 느껴지는 어투는 판소리에서 즐겨 사용되는 어투를 말한다. ③ 박을 타자 그 속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④ 한편으로는 다소 경박(輕薄)하거나 비속(卑俗)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한자를 섞어 쓰거나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양반과 평민 계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위 작품의 창작자가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구비문학(口碑文學)적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31. [출제 의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위 글에서 놀부는 꾀보에게 '네 콧소리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는 다소 엉뚱한 이유를 들어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꾀보는 샅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므로 처음에는 참는다. 그러나 다음 박을 댔을 때도 역시 놀부가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신의 잘못이 아님이 밝혀지자 그를 비아냥거리게 된다. 따라서 꾀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2. [출제 의도] 장면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이를 한자성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㉔는 놀부가 피붙이 동생인 흥부를 박대하며 악행을 일삼고 있는 부분이고, ㉕는 박 속에서 나온 '초라니'에게 놀부가 공격을 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앞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한자성어로 정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감탄고토(甘呑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의미로 사람들의 보편적 속성을 표현한 어구이다. ③ 조삼모사(朝三暮四)는 '남을 농락하는 사기나 험잡술'을 이르는 어구이다.

33. [출제 의도]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시대상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㉑ ~ ㉓은 당시(조선 후기)의 세태(世態)를 추리할 수 있는 구절들이다. ㉓은 흥부가 자신을 박대하는 놀부(형)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구절이다. 여기서 형과 동생의 관계가 멀어져 가족 관계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음은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해 경로사상(敬老思想)이 약화되고 있다고 추리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㉑은 흥부 처의 대사로서, 부질없는 청렴보다는 지금의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현실적 논리가 드러나 있다. 이는 고루한 명

분보다는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조선 후기의 경향을 보여준다. 아울러 양반사회의 유교적 명분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성적 사고와 이를 뒤집는 서민들의 저항정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㉒ ㉔은 흥부의 퇴락한 모습인데, '망진, 중치막' 등 양반들이 입는 복색(服色)으로 보아 흥부 역시 양반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몰락 양반의 등장은 그동안 탄탄하게 유지되어 온 신분제도가 동요했음을 추리할 수 있다. ㉕을 통해 당시에 돈에 대한 집착, 즉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팽배했음을 추리할 수 있다. ㉖ ㉗은 꾀보가 샅을 받고 일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 계약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가 생겨났음을 추리할 수 있다.

[34 - 37] 언어지문, '인간과 언어'

34. [출제 의도] 글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인지과정, 분절, 범주화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35. [출제 의도] 제시된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부분에서는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추리하면 번역할 때는 그 언어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한 후, 자국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의역해야 한다는 추론이 가장 적절하다.

36. [출제 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의 사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㉑의 '맞추다'는 '기준이나 정도에 알맞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답지 ⑤는 아버지의 입맛에 알맞게 음식을 하는 것이므로 ㉑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은 '순서를 고르게 하거나 짝을 채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②는 '서로 닿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은 '시킬 일, 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약속해 부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예이다. ④는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하다. 결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7.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색깔을 나타내는 말은 넓은 개념으로 보면, 모두 분절에 해당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어휘는 분절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분절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눈 답지 ①번이다. 나머지 답지들은 연속적인 상태에서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8 - 41] 이청준, '조만득 씨'

미친 사람이 차라리 행복해 보일 때가 있다. 우리 삶 앞의 벽이 너무 두껍고 살아 내야 할 현실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그렇다.

미친 사람이란 일테면 그 암살적인 삶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 내지 못하고 자기 삶의 현실로부터 훨훨 탈출을 감행하여, 임의로운 망상과 해방감 속에 평소에도 못 이룬 꿈을 마음껏 펴 나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복스러움이 진짜 행복일 수는 없는 일이다. 깨어 있는 정신과 현실 속의 깨어 있는 삶만이 진짜 삶이요. 진정한 삶의 값과 진실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친 사람은 결국, 다시 깨어나야 하고 그의 진짜 현실로 돌아가 그와 맞서야 한다. 그러나 그가 깨어 돌아간 삶의 현실이 그를 여전히 감내해 갈 수 없게 한다면, 그는 필경, 현실에의 복수를 꿈꾸게 되고 그것을 역으로 파괴하려 들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그때 그가 돌아가야 할 현실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우리의 삶은 그의 비극과 무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모양새는 어떠해야 하며 그를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조만득 씨」에 대한 작가의 말 중에서

38. [출제 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서는 사건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바라보는 미스 윤의 생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희박하고, 암살적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미친 주인공의 삶의 방식과 그의 현실의 일부인 주변 인물들의 책임에 대해 사색하듯 진술한 소설이다.

[오답풀이] ① 민 박사 ~ 조만득이 다시 도망쳐 오더라도 치료해서 현실과 맞서게 해야 한다. 미스 윤 ~ 그게 최선일지 의문,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현실에 복수할 수 있음, ② <중략>에 이어진 미스 윤의 사색 부분, ③, ④ 미스 윤 시각에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 의도] 소설 작품의 서사 전개와 인물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의 기본 흐름은 현실을 못 견디고 백만장자로 미쳐 현실을 회피한 조만득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민 박사와 미스 윤을 만나고, 병이 치료되어 현실로 돌아가 이번에는 자신이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깨부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미스 윤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생각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②는 현실을 회피한 행동에 해당한다.

40. [출제 의도] 소설 작품의 시점과 효과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원작과 달리 작품 밖의 서술자가 '민 박사'에 초점을 맞춰 서술할 경우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민 박사의 입장과 현실에서 도망쳐 온 환자의 현실 복귀 거부, 즉 치료 거부가 맞물려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오답풀이] ③ 민 박사는 치료에 대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 갈등은 없다.

41. [출제 의도] 관련되는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각색 희곡에서는 원작의 철학적 문제 제기 부분은 약화되고 병이 재발한 조만득이 우울하게 돈을 세고 있는 있으나, 백만장자처럼 나눠주지는 않는 불쌍한 모습으로 나온다. 그리고 배우들을 등장시켜 조만득과 함께 계속 돈을 세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여, 조만득을 그렇게 만든 원인이 돈, 즉 물질주의 사회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42 - 44] 이주현, '추상회화의 이해'

42.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20세기 들어 새롭게 등장한 추상회화의 특성을 설명한 글이다. 추상회화는 대상의 사실적 표현보다는 회화의 조형 요소를 강조한 그림이며, 이러한 조형 요소를 통해 화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표현한 그림이다.

43.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추상회화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드러내 주는 작품으로, 일상에서 접한 대상을 재현한 그림이 아니다. 추상회화는 외부의 형상을 모방하는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림을 감상할 때는 화면 속에서 구체적 대상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색채나 선의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4.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 파악을 통해 글의 정보를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대상을 발견할 수 없는 추상회화'를 말하며, ㉡은 '구체적 대상이 담겨 있는 추상회화 이전의 그림'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상회화'와 '추상회화 이전 그림'의 특성을 잘 구별하여야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추상회화'는 조형 요소를 통해 작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울림'을 담아낸 그림이라면, '추상회화 이전의 그림'은 구체적인 '형상'을 담은 그림이다. 이 둘을 음악에 비유하자면, ㉠은 '가락, 리듬, 박자'에 의해 구성된 음악이며, ㉡은 '가사'가 있는 노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문에 추상회화는 '음악적인 미술'로, 추상회화 이전의 그림은 '문학적인 미술'로 나눌 수 있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답지는 ㉤번이다.

[45 - 47] 이강룡, '웹기술, 스트리밍'

45.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이사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A]는 '서버'에 해당한다. 조각조각 상자에 넣어 둔 이삿짐은 '전송을 기다리는 조각 파일'에 해당한다. 철수가 이삿짐을 옮기는 행위는 서버에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전송'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짐을 옮겨와 쌓아 놓는 곳은 '버퍼'에 해당한다. 정리하기 쉽게 풀어놓는 것은 '버퍼링'에 해당한다. 정리하는 행위는 '재생'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것을 '스트리밍'이라 할 수 있다. ㉢ 철수가 이삿짐을 옮기기만 한다고 스트리밍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는 사람이 빠르게 짐을 정리했다면 다음 짐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끊김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때 '버퍼링'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46. [출제의도]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다른 예로 추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은 스트리밍이 가진 장점인 효율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다. 소장할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번거롭게 사 둘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은 몇 번 쓰지도 않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한 말로 ㉠과 유사한 생각을 담고 있다.

47. [출제의도] 글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스트리밍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문제에서 전제를 찾으라는 말은 그와 같은 생각을 말하게 된 이유 또는 근거를 말하라는 것이다. 글쓴이는 스트리밍 기술이 다운로드 하는 수고를 없애고 효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멋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 전제는 이 글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듯이 스트리밍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이 전제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 스트리밍 속성상 법률적 제약, 이를테면 저작권이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지라도 위 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본문에 언급된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 파일을 주고 이를 빌려 보는 스트리밍 기술의 속성으로 보아 전제가 될 수 있으나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확인할 수 없는 확장된 논리이다. ㉤ 스트리밍이 의사소통과는 무관하다.

[48 - 50] 사회지문, '도시는 미디어이다.'

48.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위 글에서는 소음 규제를 하는 사회를 소개하고 있지만, 소음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49.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은 개인적 편의 도구가 사회 전체의 틀에서 불편과 비효율을 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에서 '도로공사'는 개인적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없다.

50. [출제의도] 글에서 소개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은 도시를 계획하면서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리를 활용하여 공간을 연출하는 기법이다. 그런데 ㉢에서는 까치라는 문화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만, '소리'라는 청각 풍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